

'무주반딧불축제' 환경축제 인정

대한민국상품대상 시상식서 지역축제 최초 ESG경영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2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대한민국상품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축제 최초 ESG경영부문(환경 친화상품)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0월 세계축제협회 주관 2024 피너클어워즈 프로그램 부분 동상 수상에 이은 영예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적인 생태·환경축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연이은 수상으로 무주반딧불축제의 존재 가치와 위상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며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를 공유하는 생태관광이 지역발전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무주반딧불축제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상품대상은 (사)한국상품학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해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표 기업과 지자체의 우수상품 등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무주군은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접목해 친환경을 실천에 앞장서는 등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사)한국상품학회관계자는 "무주반딧불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환경축제로서 무주가 '자연특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생태관광 중심지로 자리를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올해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로

사회 전반에 끼친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상품학회는 상품 및 서비스, 상품 형성 요인과 유통에 관련된 상품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1982년 설립됐다.

국내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상품개발 및 마케팅 사례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상품 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상품대상 ESG경영부문(환경친화상품) 대상은 그동안 블랙아크(2021년), 쿠팡(주)(2022년), 시몬스침대(2023년)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들이 수상해 이 상의 공신력과 파급력을 입증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일 장수군 장수읍과 계남면에 조성되고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동부권 일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현장을 찾았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착착'

최훈식 장수군수, 조성사업 현장 등 찾아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일 장수군 장수읍과 계남면에 조성되고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동부권 일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최 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 추진단과 CJ제일제당 관계자와 함께 사업 현장에 방문해 공사 상황을 살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지로 발돋움할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후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3개 동 4㏊의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계남면 침곡리에 조성 중인 동부권 일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은 스마트팜 영농기술 확보와 일대농장 운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난 6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수군-전북도-CJ제일제당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부가가치 미래농업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직농장은 2025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동부권 스마트팜 중심지가 될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 달라"며 "스마트팜 조성 이후에도 누수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

하반기 회의 열려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지난 1일 무주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자문위원회(위원장 이영희)는 오는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운영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대안과 민의를 반영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주군의회 의원들과 각 분야별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본예산 심의 등 각종 사업에 대한 민의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광석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은 무주군의회가 바람직한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의정자문위원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용담댐 주변 주민 친환경에너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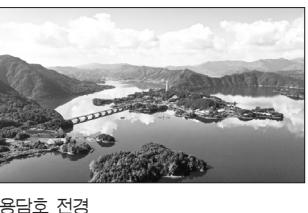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추가 공모 선정… 안천면 괴정마을 추진

진안군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되며 예산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은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광역사업이다.

진안군이 선정된 공모사업은 안천면 괴정마을을 친환경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총 예산 6억원(기금 4.41억원, 군비 0.99억원, 자답 0.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용담댐 주변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LPG)를 중앙공급하여 난방



용담댐 전경

및 취사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도시가스 수준의 환경성·안정성·경제성을 제공하여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9월에는 용담댐은 물 보존 기반 구축을 위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원(기금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2025년 예산으로 총 2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해 용담댐 주변에 각종 규제로 고통을 감내하고 사는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반딧불 뚝방야장' 성황리 개최

무주 반딧불 뚝방야장(이하 뚝방야장)이 지난 2일과 3일 무주반딧불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뚝방야장은 2024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읍 상권활성화추진단이 주관해 농산물 마켓과 아시장, 공연·승어잡이 등 체험행사로 진행됐다. 첫날 공연에는 '김&월', '조이밴드', '온가람살풀예술단', '기현수', '아랑고고무', '더블루라이어즈', 'DJ 준디'가 무대에 서 흐름을 얻었으며 이튿날에는 가수 이동준과 규리의 공연이 눈

길을 끌었다.

무주농어촌보존회의 길놀이로 막을 올린 2일 개막식은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재영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뚝방야장의 기운찬 뚝방이 무주군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며 "무주 반딧불 농산물로 몸 건강, 기족과 친구, 동료, 이웃과 함께 맘 건강챙기시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나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지난 1일 타 지역 양수 발전소 등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

구동수 유치위원회장을 비롯해 위원 및 군 직원 등 30여명은 지난 2002년도에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산청양수발전소를 방문해 시설의 운영현황 및 건설상황을 청취하고 이주 마을 견학도 함께 했다.

지리산 중간에 위치한 산청양수발전소는 시설용량이 700MW로 2002년도 준공 당시 국내 최대규모의 발전용량으로 건설됐으며 남부지역 전력수요의 급성장에 대비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운영 중이다. 참석자들은 먼저 이주마을인 예치마을에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당시 건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산청양수발전소 전력홍보관 및 상하부지 저



수지 견학으로 운영현황을 살펴보며 진안양수발전에 대한 방향성 및 유치 전략을 구상했다.

또한 양수발전소 건설 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하여 주변 관광지인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진안의 강점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 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친환경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